

언어에 거주하기:

무형문화유산의 살아있는 저장소로서

언어적 상호작용

올가 비아로스톡카(Olga Bialostocka)

언어에 거주하기:

무형문화유산의 살아있는 저장소로서 언어적 상호작용

● 올가비아로스톡카(Olga Bialostocka)

남아프리카 인간과학연구회

개요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년)은 개인과 공동체에게 사회 생활의 연속성, 역동성 및 의미를 제공하는 문화적 표현과 관습을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인정한다. 또한, 유네스코는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문화 자본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ICH)을 정체성의 원천으로 기록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유네스코가 지지하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방식 중 하나는 문화유산을 등록해 일반인에게 액세스를 제공하는 국가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문화유산을 목록으로 작성하는 것은 문화를 본질화하고 문화적 관습을 시간적으로 '고착시킬 위험이 있다.

문화적 표현의 형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산의 문화적 가치는 이러한 관습들의 의미에 있기 때문에 의미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론적 성격을 지닌 본 논문에서는 사람들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의 전달 체이자,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형태를 적응하는 도구인 언어를 다룬다. 이처럼 살아있는 문화유산이 주로 무형유산을 생성하는 사람들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언어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의 저장소이자 비(非)유기적 목록 체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동체가 토착어를 발전시키고 지역의 문화적 관습을 보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토착어의 보호와 증진에 앞장선다.

표제어

언어, 토착어, 목록, 살아있는 문화유산, 지속 가능한 개발, 사회구성주의, 브르디외의 실천 이론, 아비투스

서문

2003년 채택된 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ICH)은 공동체가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식하는 관습, 표상, 표현, 지식 및 기술로 구성된다.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된 이 같은 관습과 표현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연 및 사회 환경, 해당 공동체의 역사와 상호작용하며 이들에 의해 끊임없이 재조정/재창조된다. 사람들은 문화와 유산을 통해 정체성과 연속성을 갖게 된다(UNESCO, 연도 불명, p. 3).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ICH) 정의에는 구전 전통과 문화적 표현의 전달 수단으로써의 언어가 포함되어 있다(UNESCO, 2003년, p. 2). 그러나 혹자는 언어 자체가 사람들의 유산을 나타낸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사실상 언어는 무형문화유산으로 간주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세대간 전승되고 끊임없이 재창조되며, 구어의 경우 언어적 관습 및 표현으로 다룰 수 있다. 또한 언어는 사회적 관습, 의식 또는 토착민의 지식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한다(Smeets, 2004년).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유네스코의 정의가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점은 문화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문화는 역동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또한 유네스코(2003년, p. 1)는 세계화, 현대화, 도시화 및 환경 악화로 인해, 즉, 변화로 인해 유산과 문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종종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 불리는 소위 '전통적' 관습의 지속적인 수행은 필연적으로 변화하는 환경과

사회경제적 맥락에 대응하기 위한 외형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처럼 변화는 무형문화유산 '생애'의 일부이다. 살아있는 문화유산에서 보호해야 할 것은 문화 표현의 의미에 놓여 있는 문화적 가치이다. 의미란 무형문화유산에 미적, 영적, 사회적, 역사적, 상징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유네스코는 '보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특히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 및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 (...) 식별, 문서화, 연구, 보존, 보호, 홍보, 증진, 전승(...)등 무형문화유산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2003년, 제2조 제3항).

유네스코가 규정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방식 중 하나는 특히 공동체의 무형유산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중에게 액세스를 제공하는 국가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생성이다(UNESCO, 2003년 제12조, 연도 불명, p. 4). 목록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유네스코는 문서화가 무형유산의 현 상태를 유형의 형태로 남기는 기록과, 손쉽게 기록을 사용하고 참조할 수 있는 도서관, 기록 보관소 또는 웹 형태로의 관련 문서 보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국가목록은 살아있는 문화유산의 변경 내역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한다(UNESCO, 2003년, 제12조). 또한 유네스코는 무형유산의 보호가 이미 특정 공동체와 무관해진 유산의 외부 형태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기술 및 의미를 이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연도 불명, p.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목록의 필요성에 대해 무형유산을 직접 행하는 연행자들과 학자들은 '살아있는 문화유산'의 제도화가 오히려 무형유산을 '고착화'할 위험이 있고, '사적(史跡) 보존주의'에 입각한 이 같은 유형의 '구조(救助)적 민족지학'(Alvizatou, 2012년, p. 14)이 실제로 문화적 표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Alvizatou, 2006년과 2012년). 또한, 유네스코는 국가무형문화유산목록이 공동체의 창의성과 자긍심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UNESCO, 연도 불명, p. 4).

그러나 자긍심은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고유 유산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 표현이 목록화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의 문서화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공동체 내부에서 생겨나는 것이라 주장할 수 있다. 유산의 지속 가능성은 유산 자원의 보유에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유산의 가치는 해당 공동체가 부여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인류의 유산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며 개인의 유산으로 적절하게 적응시킨 경우에만 유산의 보호와 사용이 지속 가능성을 띠게 된다*(Albert, 2012 년, p. 37).

보호해야 할 유산(지식, 기술, 의미)의 문화적 가치가 특정 표현으로 만들어지고 여전히 기능하는 언어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언어는 관습의 의미를 보호하는 비유기적 특성의 '살아있는 저장소'이자 목록이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문화 표현과 함께 진화한다. 살아있는 문화유산은 주로 그 유산이 속한 사람들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의 의미를 보존하고 공유하기 위한 최대 도전 과제 중 하나는 바로 문화유산을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언어에 있다. 문화적 관습의 의미를 보존하고 여전히 그와 같은 관습을 행하는 공동체가 사회문화적 발전을 거듭하는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려면 해당 경험이 '탄생한' 토착어의 증진과 발전을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일차적인 조치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언어가 공동체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정의하게 하는 유효하고 가치 있는 사회문화적 관습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개념적 체계(Conceptual framework)

루마니아 철학자인 에밀 시오랑(1998 년)에 따르면, *인간이 사는 곳은 국가가 아니라 언어이다*. 언어는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개념들을 구성하도록 해주는 일종의

문화적, 사회적 규범이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사실상 담론을 통해 현실을 구성한다.

사회구성주의자들에 따르면, 현실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탄생되며, 인지되는 것이다. 구성주의자는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나 체계(framework)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지식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거부한다(Bruffee, 1986 년, p. 776). 현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현실을 구성하고 만들어낸 일군의 사람들이 합의한 개념이다. 다양한 사회적 현실이 존재하며, 이러한 모든 사회적 현실은 의미를 만들어내고 지식을 생성하는 공동체가 공유하는 물리적 세계에 관한 신념에 따라 달라진다(Gergen, 1982 년/Rorty in Bruffee, 1986 년).

인지적 사고의 중요한 가정 중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구축되고 확실성이나 진리를 보장하는 지식의 기저나 근간에 일종의 보편적인 기반, 기초, 기틀, 토대, 체계(framework)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같은 토대나 구조가 심안(개념, 사상, 이론) 또는 정신에 반영된 것과 동일한 자연(세계, 현실, 사실)에 실재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기반에 근거한 인지적 가정을 반박하는 사회구성주의적 대안은 어떠한 기반에도 근거하지 않으며(...)(Bruffee, 1986 년, p.776).

현실은 담론을 통해 구성된다. 과학적 지식의 상대성을 믿는 쿤(1970 년)과 쿤 후대의학자인 로티(1979 년)는 심지어 지식을 생산시키는 언어를 통해 지식이 식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구성주의는 관찰과 경험을 통해 정신적으로 현실을 구성하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즉 의미가 생성되고 협상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과정에 집중한다(Schwandt, 2003 년). 현실을 삶에 대한 주관적 경험이라 칭하는 만큼, 구성주의자들은

특정한 행위, 달리 말해 사회적 세계에 대한 반응이 일상적으로 반복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패턴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패턴이 사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객관적인 현실로 인식되기 시작하고(Berger and Luckmann, 1991 년), 이후 다음 세대들의 담론을 통해 재창조 및 재확인된다.

언어를 통해 이러한 패턴에 정의가 부여되지만 동시에 패턴이 변경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담론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Burr, 1995 년). 행위자로서 인간은 현실을 사회적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현실을 통제한다(Berger and Luckmann, 1991 년; Burr, 1995 년). 누가 현실을 바꿀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그와 같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지는 권력을 장악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며(Burr, 1995 년), 그 결과 일부 목소리는 거대 서사에 밀려나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

지식은 특정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생산되며 소통과 같은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표현된다(Dewey, 1920 년). 결과적으로 배경, 참여자 및 행동은 담론적 상황에 대한 가장 단순한 제어 모델(상황 모델)을 구성하며, 반 다이크(Van Dijk, 2007 년, p. 3)는 이를 *대화의 상황성(situatedness of talk)*이라 불렀다. 반 다이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정확히 지적했다. (...) *상황-담론 관계는 간접적일 수밖에 없으며 참여자들에 의해 확립된다. (...) 이런 식으로 참여자들은 담론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대표한다*(van Dijk, 2007 년, p. 4).

지속 가능한 개발패러다임- 문화의 일부를 구성하는 언어

언어는 개념을 구성함으로써 경험에 구조와 의미를 제공한다. 이러한 생성 과정은 이와 같은 과정이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좌우된다. 문화는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며(Baumann, 1999 년; Taylor, 1994 년), 그 자체가 각 개인의 준거 틀

역할을 한다. 따라서 문화는 모든 개발 정책에 편입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1970 년대에 개념으로 등장해 1992 년 리우데자네이루 회의에서 패러다임으로 인정되었다. 그 후로 인간의 경제 발전, 사회적 맥락 및 인간이 기능하는 장소의 자연환경간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3 대 주축 체계/framework)는 학계와 정책 입안자들이 해당 인구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개발 전략과 사업을 설계하는 전제로 사용되어 왔다. 이 모델은 분명히 인간을 자연 세계와 분리하지 않고 자연 세계의 일부로 간주한다는 입장에 기초한다. 또한,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 상대의 존재와 기능에 순 영향과 악영향을 미친다. 지속 가능한 개발의 '3 축' 모델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빠져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 년 전부터이다(UNESCO, 2005 년; UNGA, 2010 년; UCLG, 2010 년; UNTT, 2012 년; UNESCO, 2013 년). 관련 인구의 문화적 배경에 좌우되는 개발의 유발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국제사회는 문화를 지속 가능한 개발의 4 번째 차원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UCLG, 2010 년1).

혹자는 문화가 항상 사회적 차원의 일부로 체계/framework)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문화와 사회 구조 양자가 제어 시스템의 범주에 속하고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문화 체제(system)를 사회 체제(system)와 동일시하는 것이 전적으로 적절한 것은 아니다.

특히 의미 체제와 관련이 있는 문화 체제와 달리, 사회 체제는 환경적으로 주어진 특정 세계에서

구체적인 행동 조건에 의미를 연관 짓는 것과 관련된 인간 행동을 조직하는 방법이다(Parsons, 1972 년, p. 256).

파슨스(1972 년, p. 256)에 따르면, 사회 체제를 위한 문화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도덕적인 평가 측면(가치 체제)이다. 이러한 측면은 사회 체제에서 일종의 내적 제어 역할을 한다. 반면 외적 제어는 사회 구조에서 만들어진 입법권으로 구성된다(Stahovski, 연도 불명). 또한 문화는 정보 저장을 위한 집단적인 메커니즘을 구성한다(Posner, 2004 년, p. 28). 여기에 포함된 지식은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특정 집단 및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 구조와 얽혀 있고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지만, 반드시 그 구조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문화의 역할을 통해 사회 발전이 문화 배경과 일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문화 배경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이자 삶의 배경이고 활동의 조정자(regulator)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아 구성(self-construction)의 토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문화적 민감성(culture-sensitive)이 높은 개발이야말로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 나아가 인류의 존재 여부를 좌우해오고, 문명을 발전시킨 자연과 인간사이의 오랜 연관성을 감안 할 때, 다양한 문화에 '축적되어온' 지식 체계를 바탕으로 한 개발 전략은 한층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은 지속 가능성을 개발의 경제 축과 사회/환경 축의 통합을 촉진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전략에 결정적인 차원을 더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적 다양성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핵심을 관통하는 주요 차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유네스코 세계보고서, 연도 불명, p. 25).

또한 SDG 의제에 문화를 포함시키고 다원주의를 증진시키는 것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단순히 경제 성장이 아니라 인간 복지의 개선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포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역 공동체의 지식을 인정하고 전통적인 가치를 존중하며 공동체의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환경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전통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고 배워야 하며, 자신의 신념과 가치체제(value system)에 따라 개발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이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복지에 주안점을 두며, 권한 주체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권한은 다시 공동체에 부여되고, 이로써 과거에 적용 되었던 하향식 개발모델은 체계/framework 내에서 대체된다.

생물문화의 다양성 – 저장소로서의 언어

생물문화의 다양성체계/framework)는 지식의 저장소로서의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또 다른 관점이다. 생물문화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분야는 사회언어생태학(생태언어학) 2에서 관찰된 변화를 연구함으로써 자연 영역의 진화가 인간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하몬(1996 년)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발전은 그들이 속한 지역 생태계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고안한 언어를 통해 인간은 거주하는 생태계와 관련된 지식을 부호화하고 전달했다. 언어는 특정한 사회 및 생태환경에 의해 형성되고 이에 적응되어 왔으며, 특정 현실의 송신기 역할을 했다(Maffi, 2005 년, p. 605).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해 논할 때 우리는 사회영역 및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언어 생태계에 대해서도 인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생태계에 대한 전통적 지식이 거주자의 언어에 함축되어 있으므로 자연 환경도 언어의 상실에 의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Maffi, 2005 년, pp. 601-603). 사피어(1912 년, p. 228)가 지적인 바와 같이, 언어는 *화자가 위치한 물리적 환경의 흔적*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 및 자연 환경뿐 아니라 언어도 인간의 경험 환경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생물문화 연구 분야는 비록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언어, 문화 및 환경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회과학 접근법과도 연관성이 있다. 이 생물문화 연구 분야는 언어가 특정 현실을 드러내고 그와 같은 현실에 관해 여러 세대에 걸쳐 생산된 '객관적' 지식을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언어는 다른 '부호 체계'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개념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문화적 기억의 저장소 역할을 하며(Maffi, 2005 년), 유산은 기억을 통해 존재한다. 따라서 언어 다양성의 보호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어 있다(Maffi, 2007 년 / Skutnabb-Kangas 와 Phillipson, 2010 년).

브르디외의 실천 이론

지금까지 살펴본 개념적 체계(*conceptual framework*)를 바탕으로 문화적 관습의 본질과 살아있는 문화유산의 보존에서 언어가 수행하는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브르디외의 실천 이론을 적용해보자. 이 이론(Bourdieu, 1994 년과 1996 년)은 사회적 관습을 특정한 장(場)(사회적 공간을 나타냄)과 '아비투스'(무의식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구성하는 일련의 성향이라 정의할 수 있음)의 관계에서 생겨난 산물로 본다. 이 이론에 따르면, 아비투스는 역사의 산물로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창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어는 사회역사적 현상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모든 언어적 상호작용은 언어가 형성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회 구조를 반영하고 재생산한다.

브르디외의 이론은 사회적 행위자로서 인간의 역할에 관해 논의한다. 이 능력은 브르디외(1996 년, p. 12)가 *행위자와 속성을 분명하게 분배/배치하는 형태의 물리적 공간으로 재해석되는 경향이 있는 일련의 보이지 않는 관계들의 집합*이라 정의한 사회적공간(장, field)과 인간이 맺는 관계를 통해 활성화된다. 과학, 종교, 학문, 정치의 장 등은 사회의 '행동 영역'들이며, 이들에는 각기 내부적으로 확립된 권력체제가 적용된다. 사회적 행위자는 보통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경제, 문화 또는 상징자본에 기초해 특정 사회공간(사회 계급과 동일 한 것은 아님)에 할당된다.³ 이와 같이 '사회적 위치들'을 설정할 때는 해당하는 역사적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 이들 내부에서 아비투스(*habitus*)는 '구조화된 구조' 및 '구조화하는 구조'라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Bourdieu, 1996 년, pp. 15-17). 이때 구조화된 구조란 특정 계급의 행위자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관행들의 원칙이며, 구조화하는 구조란 (가령 기호나 인식에 기초한) 이러한 원칙이 상이한 방식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상이한 분류는 가족, 문화 및 교육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사회화를 통해 발생된다. 따라서 아비투스의 특징은 유동적이며, 개인이 처한 상황, 환경 및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달라진다. 결과적으로 아비투스는 사회적 세계에 상대주의를 도입하는데, 동일한 관습이라도 개인의 기호, 신념, 관심 또는 이해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Bourdieu, 1996 년, p. 17). 특정 장(field) 내에서 개인의 위치는 아비투스에 좌우된다. 또한 장과 아비투스가 서로 양립하지 않을 때 개인은 상실감 또는 이질감을 경험할 수 있다(Bourdieu, 1993 년, p. 17).

브르디외의 실천 이론은 무형문화유산의 표현을 비롯한 사회적 관습의 탈 역사화에 이의를 제기한다. 또한 살아있는 문화유산을 그것이 탄생한 언어에서 분리시키면 유산이 표현되었던

아비투스(habitus)가 달라지기 때문에 살아있는 문화유산도 변화 할 것임을 보여준다. *언어적 발화는 관습의 형태이며, 그 자체로 언어적 아비투스와 언어 시간 관계의 산물로 이해될 수 있다*(Bourdieu, 1993 년, p. 17). 언어는 특정한 사회 및 정치 환경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언어 교환을 통해 언어가 표현되고 재생산되는 사회 구조가 드러난다. 이 시점에서 '언어적 공산주의'가 허구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완벽하게 동일한 언어를 가진 공동체는 없으며,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은 서로 의사 소통하는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Bourdieu, 1993 년, p. 5). 또한 언어적 상호작용에는 권력의 표식이 수반된다. 악센트, 억양 및 사용하는 어휘는 화자가 사회 계급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준다. 또한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아비투스의 특성을 반영하며, 이러한 악센트, 억양, 어휘가 생산된 시장이 이것들에게 부여한 '가치'(언어 자본)를 갖게 된다(Bourdieu, 1993 년, p. 18).

또한 부르디외(1993 년)는 소위 말하는 '공인된 언어', 즉 의례에 사용되는 상징적인 담화에 대해 말한다. 그는 이러한 언어적 교류가 단순히 의사소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발화된 내용과 그와 같은 내용을 말하는 화자 모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말의 힘은 화자에게 위임된 권한의 표현 그 이상이 될 수 없으며, 화자가 하는 말, 즉 담화의 본질 및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말투는 화자에게 부여된 권한 위임의 수많은 보증 중 하나이며, 증언에 불과할 따름이다(Bourdieu, 1993 년, p. 105).

화자는 특정한 사회 영역(장)을 대표하며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발화를 정당화하는 특정한 사회적 위치를 차지한다(Bourdieu, 1993 년, p. 109). 수행적 발화는 적절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이 권한을 부여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지정된' 방식으로 적절한 말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기대했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의식 또는 관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형식적 조건과 의례적 조건이 두 충족되어야 한다(Bourdieu, 1993 년, pp. 111-113).

논의

유네스코는 문화의 역동적인 성격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문화의 장이 지닌 특성 및 문화에 본질적인 변화 과정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구상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문화를 사람들의 사회적 관습 보다는 주로 문화적 공예품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본다. 마찬가지로 대다수 국제기구들도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보다 언어 자체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Mowbray, 2012 년, pp. 84-85). 같은 맥락에서 *유네스코협약도 사라져가는 전통과 압도적인 현대성이라는 보존주의적 담화*를 통해 전통문화에 미치는 세계화의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Alivizatou, 2011 년, p. 39). 유네스코의 포맷은 목록화된 문화적 표현의 독창성, 우수성 및 이 유산들이 처한 위태로운 상황에 주안점을 둔다. 이와 같은 생각에는 문화적 진정성, 즉 현대성과 글로벌화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 불변의 전통이라는 개념이 자리잡고 있다. 무형 문화유산에 관한 이와 같은 접근법은 *위험에 처한, 진정한, 순수 문화 표현이라는 동질화된 전망을 제시하며*(Alivizatou, 2011 년, p. 55), 결국 문화의 본질화로 귀결된다. 무형문화유산 보존 수단으로 제시되는 목록화는 문화적 표현의 지속적인 변화와 적응에 이의를 제기하며, 살아있는 문화유산을 실제로 행하는 연행자들과 이와 같은 목록을 분리시킨다.

(유네스코 *협약*을 비롯해) 문화 및 언어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국제 규정들은

문화와 언어를 영토에 고정시키는 경향이 있으며(Mowbray, 2012 년, pp. 84-85), 설사 영토들이 언어에서 유래한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닌 경우에도 문화와 언어를 인종 정체성에 묶어 놓는 경향이 있다(de Seville, 2007 년, p. 192). 이러한 법적 기제들은 (가령 이민처럼) 전세계적인 변화로 야기된 인구통계 상의 변동을 거의 고려하지 않으며, 언어를 균일한 현상으로 취급한다.

브리디외의 실천 이론은 문화적 관습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이 학자가 제안한 문화의 장(field)에 관한 분석은 문화의 발전이 결코 선형적이지 않다고 제시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문화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쟁과 협상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Mowbray, 2012 년). 살아있는 문화유산을 구성하는 과정과 관습은 과거와의 관계를 재창조하는 현 세대들에 의해 재창조된다(Alivizatou, 2006 년, p. 48). 살아있는 문화유산의 감소 및 파괴에 대한 우려에 기초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이러한 갱신 과정을 고려하지 않는다(Alivizatou, 2011 년).

또한 브리디외의 이론은 살아있는 문화유산과 이와 같은 유산이 생산되는 맥락, 즉 사람, 장소 및 자원 간의 필수적인 연관성을 주장한다. 따라서 국제 규정 및 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기관은 산물 자체보다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접근법에 따라 알리비자투(Alivizatou, 2006 년과 2011 년)는 사라져가는 관습의 보존으로부터 현 세대에 의해 재탄생하고 재조정되는, 진행 중인 전통의 계승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전환은 전통을 변화와 재해석에 맡기는 한편, 유산 자체보다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을 실제로 행하는 공동체와 환경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언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효한데, 언어야말로 문화를 전승하는 매개체이며

그 자체가 인류 유산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언어는 경험을 표상하는 코드이며, 해당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을 창조한다. 언어가 사멸하면, 이 언어가 담고 있던 문화 표현의 의미와 지식도 쉽게 사라진다. 다른 언어는 같은 코드 구조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며, 상호작용이 발생했던 사회적 맥락도 전달하지 못할 것이다. 2002 년 유네스코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약 6,000 개의 언어 중 절반 가량이 사멸할 위험에 처해있다. 언어는 지난 30 년 동안 특히 미주 대륙과 호주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멸하거나 사라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적어도 3,000 개의 토착어가 사멸 직전이거나 심각한 사멸 위기를 맞았거나, 사멸하고 있다(UNESCO, 2002 년).

모즐리에 따르면, 2010 년 약 2,471 개의 언어가 사라질 위험에 처한 것으로 간주된다(Moseley, 2010 년).

한편, 베르니니는 언어 다양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위협을 제시했다(Bernini, 2014 년, p. 164).

- 일부 언어가 다른 언어를 지배하는 현상을 유발하고 소수민족 언어 또는 토착어 사용자 스스로 자신의 언어가 실용적이지 못하거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사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언어 제국주의 및 세계화.
- 인종적 정체성에 언어를 종속시키는 국가 언어 정책 및 민족국가설립의 근간을 이룬 유럽 이데올로기와 궤를 같이 하는 언어적 통일성.
- 주로 도시화, 세계화, 언어 사용자의 사회적 이탈 및 문화적 이탈로 인해 발생하는 언어 전이. 이 문제는 추후 정체성 상실을 야기할 수 있는 언어 상실로 귀결될 수 있음.

그러나, 언어도 문화처럼 진화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처럼 변화와 통합을 언어가 지닌 생명력의 본질적이고도 필수적인 측면으로 간주해야 한다. 알리자비투(2011 년, p. 55)가 지적한 것처럼, 문화 교류는 종종 문화유산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시키며, 특정 문화 환경에서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현대적 요구에 한층 부합될 수 있다. 과거는 '재생 가능한 자원'이며(Holtorf, 2006 년), 이러한 관점에서 서구의 보존주의자들의 관행은 무형문화유산을 살리는 도구로 적절치 않다. 바루차(알리자비투 2000 년 인용에 근거함, Bharucha, 2012 년, p. 16)는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된 전통적 관습과 의식이 문서화나 보존이 아닌 창조, 파괴 및 갱신의 순환적 수행 과정을 통해 구체화되는 문화 전승의 대안적인 체계(framework)를 제공한다고* 인식했다. 따라서 문화유산의 진정성과 회복 불가능성이라는 유럽 중심의 규정은 변화와 갱신의 담론으로 대체되어야 한다(Alvizatou, 2006 년).

살아있는 문화유산을 문서화 및 목록화하는 대신, 지역 공동체가 문화적 정체성에 기여하는 문화적

관습을 즐기고 유지할 수 있도록 발전 경로를 찾게 해주는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경우 이러한 정체성이 부여되는 지역 언어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너무도 많은 의미가 번역 과정에서 사라진다. 토착어로 교육 과정에 쓰일 자료를 설계하고 지역사회 스스로 자신들의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 여기는 문화적 관습, 풍습 및 전통을 이들을 생산해낸 본래의 언어로 가르치도록 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시킨다면 전통 지식과 기술의 진정한 이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 관습을 직접 배우며 살아가지 않은 채 그저 가르치거나 전시 목적으로 문화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문화적 가치를 잃어버린 영혼 없는 행위가 될 것이다. 살아있는 문화유산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 존재하며, 기억을 통해 언어로 소통하고 협상하며, 재 발명된다. 따라서 언어를 무형문화유산 자체로 정의하든, 아니면 순전히 무형문화유산의 매개체로 정의하든 관계없이 토착어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규정은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국내법 및 국제법에 통합되어야 한다. 📖

미주

- This work is based on research supported in part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South Africa (Grant Number 103462)
1. See also <http://www.agenda21culture.net/index.php/documents/culture-as-a-goal-in-post-2015>
 2. A field of study pioneered by Einar Haugen which describes relationships between languages and the populations that speak them with regard to their social, biological and physical environments. See Haugen, E., 1971. 'The ecology of language' in *The Linguistic Reporter*, Supplement 25: pp. 19-26; also Mühlhäuser, P., 1996. *Linguistic ecology. Language change and linguistic imperialism in the Pacific region*. London, Routledge.
 3. For definitions of the capitals, see Bourdieu, P., 1993. *Language and Symbolic Power* (edited and introduced by J. Thomps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 14.
 4. See also UNESCO, n.d. *Identifying and Inventory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vailable from: <http://www.unesco.org/culture/ich/doc/src/01856-EN.pdf>, where the physical location of the ICH element is included in a suggested format for an inventory.

참고문헌

- Albert, M-T., 2012. 'Perspectives of World Heritage; Towards Future-Oriented Strategies with the Five 'Cs'' in Albert, M. T., Richon, M., Vinals, M. J., and Witcomb, A. (eds.) *Community Development through World Heritage*. Paris, UNESCO.
- Alivizatou, M., 2006. 'Contextualiz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Heritage Studies and Museology' i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3: pp. 44-54.
- Alivizatou, M., 2011. 'Intangible Heritage and Erasure: Rethinking Cultural Preservation and Contemporary Museum Practice' in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roperty*, 18: pp. 37-60.
- Alivizatou, M., 2012. 'The Paradoxes of Intangible Heritage' in Stefano, M. L., Davis, P., and Corsane, G. (eds.)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oodbridge, The Boydell Press.
- Baumann, G., 1999. *Multicultural Riddle. Rethinking National, Ethnic, and Religious Identities*. London, Routledge.
- Berger, P. and Luckmann, T., 1991.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London, Penguin Books.
- Bernini, A., 2014. 'Language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bout an 'Ecolinguistic Capital'', in *Sustainable Multilingualism*, 5: pp. 164-186.

- Bharucha, R., 2000. 'Beyond the Box: Problematizing the New Asian Museum' in *Third Text*, 52: pp. 11-19.
- Bourdieu, P., 1993. *Language and Symbolic Power* (edited and introduced by J. Thomps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ourdieu, P., 1994. 'The Field of Culture Production, or: The Economic World Reversed' in Bourdieu, P., (ed.) *The Field of Cultural Produc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Bourdieu, P., 1996. *Physical Space, Social Space and Habitus*. Rapport 10. Institutt for sosiologisamfunnsgeografi, Universitetet i Oslo. Available from: <https://www.sv.uio.no/iss/forskning/aktuelt/arrangementer/aubert/tidligere/dokumenter/aubert1995.pdf>
- Bruffee, K. A., 1986. 'Social Construction, Language, and the Authority of Knowledge: A Bibliographical Essay' in *College English*, 48 (8): pp. 773-790.
- Burr, V., 1995. *Social Constructionism*. London, Routledge.
- Cioran, E., 1998. *Anathemas and Admirations*. New York, Arcade Publishing.
- de Seville, I., 2007. *The Etymologies of Isidore of Seville* (translated by Barney, S. A., Lewis, W. J., Beach, J. A., and Berghof, O.).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wey, J., 1920. *Reconstruction in Philosophy*. New York, Holt and Company.
- Gergen, K. J., 1982. *Towards Transformation in Social Knowledge*. New York, Springer-Verlag.
- Harmon, D., 1996. 'Losing species, losing languages: Connections between biological and linguistic diversity' in *Southwest Journal of Linguistics*, 15: pp. 89-108.
- Holtorf, C., 2006. 'Can Less Be More? Heritage in the Age of Terrorism' in *Public Archaeology*, 5 (2): pp. 101-110.
- Kuhn, T. S., 1970.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ffi, L., 2005. 'Linguistic, Cultural, and Biological Diversity' i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9: pp. 599-617.
- Maffi, L., 2007. 'Biocultural Diversity and Sustainability' in Pretty, J., Ball, A., Benton, T., Guivant, J., Lee, D. R., Orr, D., Pfeiffer, M., and Ward, H. (eds.) *The SAGE Handbook of Environment and Society*. London, SAGE.
- Moseley, Ch. (ed.), 2010. *Atlas of the World's Languages in Danger* (3rd ed.). Paris, UNESCO.
- Mowbray, J., 2012. *Linguistic Justice. International Law and Language Poli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arsons, T., 1972. 'Culture and Social System Revisited' in *Social Science Quarterly*, 53 (2): pp. 253-266.
- Posner, R., 2004. 'Basic Tasks of Cultural Semiotics' in Withalm, G. and Wallmannsberger, J. (eds.) *Signs of Power. Essays in Honor of Jeff Bernard*. Vienna, INST.
- Rorty, R., 1979. *Philosophy and the Mirror of Natur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pir, E., 1912. 'Language and environment' in *American Anthropologist*, 14: pp. 226-242.
- Schwandt, T. A., 2003. 'Three epistemological stances for qualitative inquiry: Interpretativism, hermeneutics and social constructionism' in Denzin, N. and Lincoln, Y. (eds.) *The Landscape of*

Qualitative Research: Theory and Issues. Thousand Oaks, Sage.

- Skutnabb-Kangas, T. and Phillipson, R., 2010. 'A Human Rights Perspective on Language Ecology' in Creese, A., Martin, P., and Hornberger, N. (eds.) *Ecology of Languag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Education*, vol. 9 (2nd ed.). New York, Springer.
 - Smeets, R., 2004. 'Language as a vehicl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Museum International*, 56 (1-2): pp. 156-165.
 - Stahovski, N., 1999. 'On structural and functional status of culture in the social system' in *Electronic Journal of Sociology*. Available from: <http://www.sociology.org/content/vol004.003/romanian.html>
 - Taylor, Ch., 1994. 'The Politics of Recognition' in Gutmann, A. (ed.)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2010. *Policy Statement on Culture as the Fourth Pillar of Sustainable Development*. World Summit of Local and Regional Leaders. Available from: <http://www.culturaldevelopment.net.au/wp-content/uploads/2010/11/Culture4pillar-policy.pdf>
 - UNESCO, 2002. *Linguistic Diversity: 3000 Languages in Danger*. UNESCO Press Release 2002-07. Available from: <http://www.unesco.org/bpi/eng/unescopress/2002/02-07e.shtml>
 - UNESCO,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vailable from:<http://unesdoc.unesco.org/images//0013/001325/132540e.pdf>
 - UNESCO, 2005.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vailable from: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4/001429/142919e.pdf#page=9>
 - UNESCO, 2013. The Hangzhou Declaration on Placing Culture at the Heart of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Available from: <http://www.unesco.org/new/fileadmin/MULTIMEDIA/HQ/CLT/images/Fin alHangzhouDeclaration20130517.pdf>
 - Identifying and Inventory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vailable from: <http://www.unesco.org/culture/ich/doc/src/01856-EN.pdf>
 - UNESCO World Report, n.d. *Investing in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Executive Summary*. Available from: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8/001847/184755e.pdf>
 - UNGA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10. *Culture and Development*. Available from: http://www.unesco.org/culture/pdf/text_unga_resolution_culture_%20and_development_en.pdf
 - UNTT (United Nations System Task Team), 2012. *The Future We Want for All– Report to the Secretary-General*. Available from: http://www.un.org/millenniumgoals/pdf/Post_2015_UNTTreport.pdf
 - van Dijk, T. A., 2007. 'Macro Contexts' in Scheu Lottgen, U. D. and Sánchez, J. S. (eds.) *Discours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Bern: Lang.
-
